



아빠의 자리를 제대로 잡아 주어라

아빠의 자리를 잡아 주는 건 엄마의 몫인지도 모른다. 분명 속상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엄마들이 그 일을 가까이 하는 현명함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건 분명히 아이들뿐 아니라 당신 그리고 당신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므로.

글 신의진 교수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

한 동료 의사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둔 그는 식사 도중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신 선생님, 중학생들은 원래 그렇게 무뚝뚝한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2~3년 전만 하더라도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있던 일도 곧잘 이야기하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을 잘 안 하더라. 그래도 엄마와는 티격태격하면서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아빠와는 눈도 잘 맞추지 않았다. 워낙 바깥일이 바빠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지만, 주말에는 꼭 집에 있으려 한다거나 애들 학원을 체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다.

너무 바쁜 아빠들이 빠지는 함정

나는 2~3년 전 경모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다. 경모 아빠 역시 다른 아빠들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잘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정말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남편이 나나나 대학 병원 의사인 건 마찬가지로 전공도 비슷한데,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들 문제에 종종거리는 데 비해 남편은 회식과 학술 대회, 심지어 휴일 운동도임까지 꼬박꼬박 참석했다. 나는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기에 남편과 한동안 갈등이 계속되었다. 나중에 남편에게 툭 터놓고 말한 뒤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잘 나가는 아빠와 남편 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 남편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아빠가 우리 남편과 같은 이유로 바깥일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건 남자들의 착각일 뿐, 아이들과 아내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바쁜 아빠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돈 버는 기계’로 한정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편의 그런 생각은 미국에 갔을 때 급격히 바뀌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라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거의 가족과 함께 보낸다. 남편은 경모와 자전거나 롤러블레이드도 타고, 햄버거도 먹으러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깥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아이 옆에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남편 스스로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그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들, 그것이 남편을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아빠라는 존재는 어디에야 하는가

나는 아이들이 "오늘도 아빠는 늦게 오셔?" 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지금 밖에서 아픈 환자를 도와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안 아픈 우리가 오늘은 조금 참자" 라고 달랬다.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바쁜 와중에도 잠깐 짬을 내서 아이들과 통화를 하도록 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한테 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봐'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빠가 지금 옆에 없어도 그 존재감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아빠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아이가 초등학교 3~4학년만 되어도 전과는 달리 엄마 혼자서 키우기가 힘에 부친다. 아이의 관심사와 생활터전은 이제 집이라는 좁은 공간을 넘어 학교, 학원, 또래 모임, 심지어 인터넷 동호회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아이는 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접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그때 아이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존재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숙제, 방 정리, 씻고 옷 입기, 밥 먹기 등으로 씨름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아빠는 거기서 한발 물러나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친다. 아빠는 사소한 일로 매일 갈등을 빚는 엄마와 아이를 중재해주는 현자여야 한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현명하게 결정하는 존재여야 한다.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단호한, 그래서 힘이 있는 아빠여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반항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는 아주 기특하고 귀여운 10대가 될 수 있다.

바쁜 아빠를 위한 엄마의 지혜

아빠가 이렇게 현자로서 가정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엄마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혼낼 때 아빠를 이용(?)하는 일이다. 물론 남자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 심하게 혼나야 할 때는 아이의 잘못을 아빠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이용해서 "너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이를 거야.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라고 아이를 협박하거나 아빠에게 "재 좀 혼내 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엄격한 아빠들의 특성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몹시 바쁘셨음에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그저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느라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아 바쁘신 거란다" 라고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걸 오히려 싫어하던 어머니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갈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할 때 늘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셨다. 나는 그게 아버지가 현명하시기 때문인 줄만 알았다. 허나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현명함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덕분이다. ☺

